

현장과 시각

예산 심의 기간 늘려야



박지경

서울취재팀 차장

여야가 애초 합의한 처리시한 12일을 하루 앞두고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11일 오전에는 모든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킨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이라면 12일 오후 늦게 계수조정 작업을 끝내고 부랴부랴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회부, 통과시킨 뒤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12일이 거의 끝나가는 11시50분께나 본회의가 열릴지 모르겠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헌법에 어긋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 2항을 놓고 볼때 지난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차기연도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2003년 이래 올해로 내리 6년째다. 1990년 이래 18년 동안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도 6차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현재 60일에 불과한 예산안 심의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상 예산 심의 기간은 재정규모가 736억원에 불과했던 1963년에 도입된 것으로 2009년도 예산 및 기금규모인 283조8천억원에 심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240일, 영국은 120일, 독일은 120일, 프랑스는 70일 등의 예산안 심의기간을 두고 있다.

더욱이 구조적으로 예산심의 기간 60일도 채우기 힘들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감 대상 선정, 증원대책 등 국정감사 준비로만 한 달여를 보내고 10월이나 돼야 국감을 실시한다. 또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 예산 심의는 11월 중·하순에야 본격 시작할 수 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예산 심의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는 최근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당길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특별위원회로 1년 기인된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송병철 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장은 "예결위를 상임위화해 연중 예결산을 심의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가 상설화하면 4~5월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분야별 재원배분 심의, 6~8월 결산심의, 9~12월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원구서 협상 때 민주당에서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kpark@kwangju.co.kr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수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4년3개월간 활동하고 임무를 종결한 자이툰 부대의 본격적인 철수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10일 자이툰 장병들이 쿠웨이트로 옮길 물자를 포장하고 있다.

美 국무부 "北 테러국 재지정 언제든 가능"

미국은 북한이 핵검증 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재가 취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10일 밝혔다."

손 매킨 맥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검증체제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언제든 가능한 일이라고 생

각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렸으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정사실화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는 최근 미 국무당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군 당국의

중요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렸으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정사실화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는 최근 미 국무당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군 당국의

중요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렸으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핵폭탄 여러개 제조했다"

게이츠 미국방장관

미국 국방당국이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내놓아 파문이 이는 가운데 이연희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미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폭탄 제조를 기정사실화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는 최근 미 국방당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군 당국의

중요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렸으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 최신호(2009년 1-2월호)에 기고한 '균형잡힌 전략' 제하의 글에서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고, 이란은 핵클럽 가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예산 증액 및 군사력 증강, 이른바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들의 화생방무기를 이용한 공격 가능성 등 현재 미국이 처한 안보 상의 도전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검증의정서 합의 실패

6자회담, 다음 일정도 못잡아

베이징에서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합의서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소식통은 11일 "검증의정서에 합의의 뜻을 못잡았다"고 전했다. 다른 회담 소식통은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으며 중국은 의장직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검증의정서의 문서화

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 참석한 뒤 서우두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5개국도 다 합의했지만 북한은 국제적 검증기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회담 일정은 잡지 못했지만 검증의정서에 합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비행기 시간 때문에 나는 먼저 공항에 왔으며 중국 측이 의장직임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美 하원 車업계 140억달러 지원 승인

미 하원은 10일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체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 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빅3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으로 조성된 대출 자금과 신용 한도를 확대해 주고, 연방 정부 내에

구제안을 총괄하는 '자동차 차트'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을 상원에 넘겨 주

말까지 입법 과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민주당 계획대로 추진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AP통신 등 언론들은 의회 관계자들이 의결을 전제로 민주당과 백악관이 자동차 '빅3' 지원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백악관도 협상이 끝났다고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양측간 "매우 좋은 진전이 있다"며 사실상 협상이 타결 국면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살해 계획

하와이 50대 체포

미국 하와이에 사는 50대 남성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가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살해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 비밀감찰국은 오바마 당선인이 가짜 그리스도이며, 그를 숨겨주면 두 부

활하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한 혐의로 하와이 카네오헤에 사는 마크 미야시로(56)를 체포했다고 지역 방송인 KITV가 11일 보도했다.

미야시로는 오바마 당선인이 휴가차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새총과 구슬로 그를 공격하겠다고 말했으나 비밀감찰국이 그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러시아 제 살상용 소총이 발견됐다고 KITV는 전했다. /연합뉴스

2009년 편입학생 공시. 그동안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을 배출한 "김영선생대학편입". 김형대학편입학원. 개강 12월 1일 첫진도. www.kimyong.co.kr

(주)옥션코리아.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권·속·원. 권·속·원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백암온천과 신비의 비경인성. 백암 울릉도 2박3일 매주 토요일 출발 1인 23만 5천원.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서비스. (주)나산항공관광여행사.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9-2번지 제일은행 4층 T.062-224-0009 F.062-223-8077